

# 출장보고서

## 1. 출장 목적

- 2010년도 대표공동과제인 『금융산업과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』에 참여할 해외연구진(NYU Stern School of Business)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들의 연구 참여 범위를 협의하기 위함.

- ## 2. 출장 참가자 : 연구위원 연태훈 (시장제도 연구부) 연구위원 허석균 (금융경제연구부)

## 3. 일정

- (1) 전체 기간: 2010년 9월 13일(월)~9월 17일(금)

(2) 세부 일정

- 2010년 9월 13일 11시(오전) 서울 출발 (KE081편)
- 2010년 9월 14일 10시(오전) NYU Stern School에서 1차 회의를 진행
  - 회의에는 Viral Acharya, Philip Schnabl, Matthew Richardson, Anthony Lynch, Marti Subrahmanyam, Stephen Figlewski 등 NYU 교수 6인이 참석
- 2010년 9월 14일 2시 (오후) Dr. Tanju Yorulmazer(FED NY)와의 면담
- 2010년 9월 15일 4시(오후) NYU Stern School에서 2차

회의를 진행

- Viral Acharya, Ingo Walter, Matthew Richardson, Marti Subrahmanyam 교수 등 4인이 참석

○ 2010년 9월 16일 2시(오후) 뉴욕 출발

#### 4. 세부 논의 사항 (순차적으로 정리)

##### (1) 사전 준비 과정(~2010년 9월 13일(화))

□ 먼저 5월 27~28일 양일 간 있었던 『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개편』 KP2 국제회의의 성과를 정리하고 여기에 기고된 한국측 논문의 구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짐.

○ 총 7편의 한국 측 논문이 발표되었으며, 각 논문의 주제 및 저자는 다음과 같음.

- (i) 연태훈·허석균(KDI):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와 이에 대한 경기역행적 자본규제의 효과(이론적 모형)
- (ii) 김현욱(KDI)·김세완(이화여대): 은행에 대한 여러 규제 조치 비교(실증 분석)
- (iii) 박창균(중앙대):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정치경제학적 함의
- (iv) 송민규(금융연구원)·조성빈(KDI): 기업의 환위험 노출
- (v) 정대회(KDI): Covered Interest Parity가 위기 이후 성립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설명 시도
- (vi) 조성빈(KDI): 신용평가사의 문제
- (vii) 이호준, 윤경수(이상 KDI), 여은정(중앙대): 금융기관

## CEO의 평가보상체계

- 기존 국내 연구 참여진의 기여 범위를 고려할 때, 전체적 구성상 다음의 부분에서 연구진 보강이 필요하며, 국내 연구상황을 감안할 때, 해외 연구진을 섭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함.
  - (i) Systemic risk의 측정 및 감독
  - (ii) SIFI(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)에 대한 논의
  - (iii) Cross-border banking에 대한 규제
  - (iv) Covered bond의 도입
  - (v) Global Financial Safety Net
  - (vi)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Centralized Clearing System의 도입

### (2) 1차 협의 (2010년 9월 14일(수))

- 1차 회의에서는 본 과제의 취지 및 성격, 그리고 일정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아울러 사전회의에서 정리된 부분에 대한 의견 전달이 있었음.
  - 과제의 성격 상 정책적 논의에 보다 무게 중심이 실려야 하며, 일정 상 11월초까지는 KDI로 원고가 전달되어 함을 언급하였음.
- 이에 대하여 Stern School 측 참석자들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일정 부분 기여가 가능할 것임을 밝히거나,

다른 연구자를 추천해주었음.

- (i)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: Matthew Richardson, Thomas Cooley, Ingo Walter 등
- (ii) SIFI에 대한 논의: Nouriel Roubini, Viral Acharya, Matthew Richardson
- (iii) Systemic Risk의 측정 및 감독: Viral Acharya 외
- (iv) Centralized Clearing House: Anthony Lynch, Marti Subrahmanyam, Stephen Figlewski
- (v) Financial Safety Net으로써 Deposit insurance에 대한 Premium Charge: João A. C. Santos, Tanju Yorulmazer (NY FED)
- (vi) Cross-border banking: Ingo Walter

### (3) Dr. Tanju Yorulmazer(FED NY)와의 면담

- Financial Safety Net으로써 Deposit insurance에 대한 premium charge를 주제로 본 과제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는 자리를 가짐.
  - 본 과제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였으나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와의 일정이 안 맞는 문제로 참여는 고사

### (4) 내부 회의 (2010년 9월 14일(수)~15일 (목))

- 1차 협의 시 Stern 측이 제시한 주제와 그 이후 이-메일로 송부 받은 관련 논문 리스트를 근거로 내부 회의를 진

행한 결과 다음의 세 주제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림.

- (i) SIFI에 대한 논의: Nouriel Roubini, Viral Acharya, Matthew Richardson
- (ii) Centralized Clearing House: Viral Acharya, Marti Subrahmanyam, Stephen Figlewski
- (iii) Cross-border banking: Ingo Walter

#### (5) 2차 협의 (2010년 9월 15일(목))

- Stern 측과의 2차 협의에서는 이러한 내부 결정을 통보하고 해당 연구진 중 참여가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본 대표 과제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.
-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, 이들 대부분이 이번 금융위기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한 바, 본 연구의 참여시 일정 부분 자신들의 기존 연구와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음.
- 따라서 1) SIFI에 대한 논의와 Cross-border Banking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연구참여 확정, 2) Central Clearing House의 경우에는 NYU측이 중복 인용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연구성과물의 저작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이를 전제로 연구진의 대표과제 참여 확정

- 상기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에 따른 성과 보상은 기존 저작권과의 관계 및 연구자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\$ 5,000±a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.

## 5. 추가 진전 사항 및 향후 계획

- IMF의 Dr. Schnasi가 Global financial safety net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과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결과,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참석을 확정함.
  - 지난 번 국제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인 Dr. Gary Schinasi(IMF)와 본인의 최근 연구에 관하여 교신을 한 바, 이에 따르면 Schinasi는 global financial safety net 또는 global coordination in financial regulation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.